

포천문화원 18번째 반월문화제 개최

16일 종합운동장에서 백일장, 사생, 서예, 사진촬영대회

포천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및 학생들의 작품활동을 통한 심성 순화와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물론 시민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포천문화원이 주관하는 제18회 반월문

화제가 오는 16일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각 학교 학생 등 일반 시민이 대거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시민의 축제로 승화하고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소질을 펼칠 수 있는 장 마련이라는 방침 아래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백일장과 사생, 서예, 사진촬영 및 전시, 종이접기 참여 마당 부문으로 나뉘어 열리며 종이접기는 참가신청을 따로 받지 않고 행사 당일 참가가 가능하며 각 부문 일반부도 행사 당일 참가 가능하다.

이날 각 부문에서 입선한 사람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주어지며 행사 후 수상작품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시상은 백일장의 경우 장원, 차상, 차하, 장려, 입선으로 구분해 시상하며 사생, 서예, 사진촬영의 경우는 최우수, 우수, 특선, 입선 등으로 시상한다.

이날 대회 참가자는 오전9시10분까지 입장을 완료해야 하며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고 입선 작품의 경우는 작품집을 발간한 후 입선 등위를 날인하여 반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532-5015로 문의하면 된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새 열 줄 신임 포천문화원 오대근 사무국장

“지역문화 활동의 구심체 역할 노력할 것” 약속



포천문화원 사무국장에 포천 시청 공무원으로 20년간 봉사해온 오대근씨(사진·42)가 지난 6일 취임했다.

신임 사무국장은 앞으로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며 포천문화원의 업무와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역할을 하게 된다. 오 사무국장은 앞으로 계획에 대해 “문화원이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중심센터로서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문화 활동의 구심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포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색깔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향토의 고장으로 발전시키고 역사와 지리, 인물과 문화, 유물 유적에 대한 향토문화연구 사업과 향토사 교육, 문화유산 재조

명, 생활문화 실현 등 향토 문화교육사업에 주력하는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복원이 진행중인 반월성지를 비롯 문화 유적 답사 순례 코스를 개발하여 앞으로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가족단위 탐방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열린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 사무국장은 지난 80년 4월 포천시 공직자로 입문하여 2002년12월31일까지 근무하면서 문화공보실에서 공보 및 홍보업무, 문화유산조사, 전반기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 포천 문화원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97)

훈도(訓導) 윤흥순(尹興淳) 선생님



당시에 이해관(李解觀)선생님도 신야의숙(莘野義塾)을 설립하여 서로 각각지세(서로 합심 협력함)를 이루었고 향리(鄕理)에 이른자(興論者-판소리 하는 사람)들도 점차 판소리 안하게 되었다.

그후, 의숙은 폐지되고 공립보통학교가 일어나니 선생께서는 1911년 교원으로 임명받으시고 1921년 제3종교원시험에 합격하셨고 1922년 훈도로 승진 근무하시다가 1929년 병으로 퇴임하시니 19년 재직하셨다.

선생님의 타고나신 성품은 침착하고 정숙하시고 평화롭고 온후(沈靜和厚)하셨으며 지성(至誠)으로 훈육하시어 마치 불바람이 만물에 불어오는 것 같아서 자연히 사람으로 하여금 감복(感服)하게 하셨다.

본교의 교장 모오리 모도마사씨는 “윤 선생님은 진정한 교육자였다.”고 하였다. 병증(病症)으로 계신지 6년만에 쇠약하여 돌아가시니 51세였다.

여러 졸업생들이 생각하니 아아 슬프도다 선생님의 업적이 오래되면 없어질 것을 걱정하여 업적을 개략(概略)하여 돌에 새겨 교문 곁에 세웠으니 오랫동안 영원한 계획(計策)인 것이다. 돌에 새겨 이르기를 “나이는 짧게 할 수 있어도 이름은 깎아 없앨 수 없다. 아아 선생님의 수(壽)는 영원이 그렇게 생리(生理)로다”

포천공립보통학교 졸업생 일동이 훈목(薰木: 향료를 뜻함)을 뿌리고 머리를 감아 몸을 깨끗이 함(盥)하고 삼가 기록하다. 1935년 9월 0일 세우다.

이는 포천초등학교 교정에 서 있는 윤흥순(尹興淳)선생님의 기념비문을 한학자 전 포천향교의 유봉현 전교님이 번역(國譯)하신 것을 윤선생님의 후손인 윤영구씨가 제공하여 적은 것이다.

포천 최초교육자(신식교육)로 고등문관 시험(현 행정고시)보다도 어렵다는 훈도(교사)시험에 합격하여 당당히 보통학교 훈도로서 19년간 봉직하신 훌륭한 모범교육자이셨던 윤흥순 선생님이여말로 많은 포천인들의 존경의 대상이었으며 국회의원(교통부장관) 윤성순 박사를 비롯하여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윤선생님의 선친께서 세우셨던 옥성의숙은 포천보통학교의 전신이었다. 운동장 곁에서 현관 앞으로 옮겨졌던 윤선생님의 비석은 다시 운동장 구석으로 옮겨져 개교기념탑 뒤에서 숨어 있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 저머지는 아픔을 느낀다.

여명기의 진정한 교육자의 기념비가 이토록 천대받아도 된단 말인가? 동창회에 묻고 싶다.

필지연역취 : 02)832-2434

포천의 명현탐구 (94)

명리(名利)를 돌보지 않고 세속(世俗)을 떠난 대학자요 시인(詩人)이었던

김창흠(金昌翕) · 1653(효종4)~1722(경종2)



리효종 (포천향토사연구소장)

자는 자익(子益)이고, 호는 삼연(三淵)이며, 본관은 안동이다. 척화학자(斥和學者)로 유명한 청음 김상헌(淸陰 金尙憲) 상공의 증손이고, 영의정 수항(壽恒)의 아들이다. 영의정 창집(昌集), 대제학 창협(昌協)의 아우이다. 정판재 이단상(靜齋齊 李端相) 문하에서 수학하고 도한 쥬수재 조성기(拙修齋 趙聖期)와 아버지의 스승이기도 한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을 자주 찾아 가르침을 받았다.

어려서부터 인품이 높고 성품이 호방하여 작은 일에 거리가 없고 호방한 성격으로 환로(宦路)에는 뜻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명에 따라 진사시에 응시하여 일등으로 합격하였으나 이후에는 과장(科場)에 일체 나가지 않았다.

백약(白岳)기슭에 낙송루라는 집을 짓고 동지들과 더불어 독서를 하고 산수를 즐기며 시작(詩作)으로 세월을 보냈다. 우의정 식암 김석주(息庵 金錫周)가 그의 문장과 탁월한 식견 및 행동을 보고 조정에 천거하여 1684년(숙종 10) 장악원 주부를 제수 받았다. 1696년(숙종 22)에는 서연관(書筵官)에 선발되고 1715년(숙종 41)에 사헌부 지평(持平)을 제수 받았으며 경종 초에는 집의(執義)에 승격되고 또한 경종은 세자 시강원 진선(侍講院 進善)으로 불렀으나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산수를 좋아하여 방랑시인 모양으로 전국을 명승지를 두루 찾아 시작(詩作)을 하면서 산수를 즐겼다. 그는 유(遊)와 은(隱)의 속성이 강한 은자(隱者)였지만 자아의 실현과 자기표현의 측면에서는 전형적인 시인이었다. 벼슬길을 버리고 시업(詩業)을 선택한 그는 평생 시인임을 자부하였으며 보고 느끼는 삶의 애환 그리고 발전과 깨달음의 기쁨을 시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해서 지은 시가 남아있는 것만 해도 500여수에 이르렀다. 후세에서는 농암(農巖-형 창협)의 문(文)과 삼연(三淵)의 시(詩)를 쌍벽(雙壁-두개의 구슬)이라 일컬었다.

그는 일찍이 천마산과 금강산을 구경하고 강화도 적석사(積石寺)에 들어가 한동안 글을 읽었다. 속리산과 백마강을 구경하고 평양을 유람하였으며 강원도로 들어가 한계령을 넘어 설악산을 답사하고 월출산과 죽촌정(竹村亭)을 돌아 보면서 많은 시작(詩作)을 남기었다.

1676년(숙종 2)에는 중형 창협(昌協)과 같이 중흥사(重興寺)를 찾아 한동안 그곳에서 독서와 학문연구를 하였다.

1679년(숙종 5) 철원의 용화사(龍華寺)에 우거하면서 가까운 곳에 있는 삼부연(三釜淵)의 절경에 매료되기도 하였다.

호를 삼연(三淵)이라 한 것도 삼부연의 경치에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포천에 들어와서는 백운계곡과 영평천 영평팔경에 매료되어 아버지의 노후를 생각해 주거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己巳換局-장희빈의 아들로 세자를 책봉하려는 숙종의 뜻을 서인들이 시기상조라고 반대하자 남인들이 탄핵하여 송시열을 위시한 서인들이 제거되어 유배 혹은 죽임을 당하고 정권이 남인에게 넘어간 사건)으로 아버지(수항)가 삭탈관직되어 유배되자 적소(積所)인 진도(珍島)까지 배종하였다가 그 곳에서 사사(賜死)되자 아버지를 장사지내고 아버지의 노후를 생각하며 마련하여 두었던 주거지 이동면 연곡리에 중형(창협)이 은신하고 있어 그곳에 아버지의 귀원을 모셨다.

이때 촌로 김성대(村老 金聲大)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이곳에서 아버지의 삼년상을 치르고 적막한 심정을 달래기 위하여 이제 가을 청평산에서 설악 한계령을 거쳐 1693년(숙종 19) 봄 양평 국연(鵜淵)과 서종면 노문리(盧門里)에서 기거하였다.

1695년(숙종 21) 영평에 돌아와 머물렀다. 백형 창집의 일지인 백전(白川)과 강화를 왕래하였으며 1710년(숙종 36) 강릉 오죽헌(烏竹軒)을 거쳐 간성(杆城)의 경성지를 유람하고 이어서 평강의 부석사(浮石寺)에서 머무르다가 영평으로 돌아와 은거하였다.

1722년(경종 2) 장형 창집이 조태채(趙泰采), 이이명, 이견명(李健命) 등 노론 4대신이 반역을 도모한다고 김일경(金一鏡), 목호룡(鹿虎龍)이 무고하여 사사되자 충격을 받고 지방이 학화되어 세상을 떠나 향년이 76세이었다. 지금의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부인 묘소에 합장했다. 조정에서는 이조판서에 증직하고 문강(文康)의 시호를 내렸으며 숙종 묘정에 배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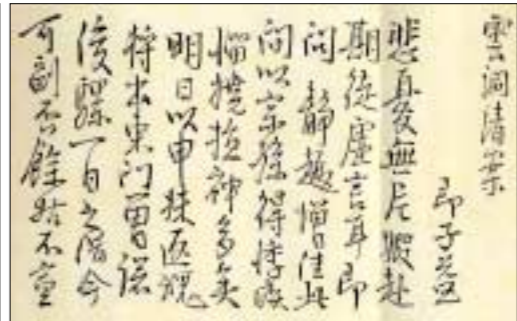
성리학에 밝고 도학과 문장에 뛰어나 형제 모두가 울곡 이후의 대학자로 칭송된다. 더구나 삼연은 70세를 통해 전인미답(前未未踏)의 경지를 개척한 시인이며 명리를 돌보지 않고 세속을 떠난 은자(隱者)요, 독학자(獨學者)의 학자라는 평을 받았다.

포천의 요산영당(峽山影堂-지금의 요산단)을 비롯하여 춘천의 춘천영당(春川影堂), 양주의 석실서원(石室書院), 양근의 미원서원(迷源書院), 강릉의 호해정영당(湖海亭影堂), 덕원의 충곡사(忠谷祠), 양구의 서암사(書岩祠)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삼연집(三淵集), 삼양일기(審陽日記), 문취(文趣) 등이 있다.



▲ 김창흠



▲ 김창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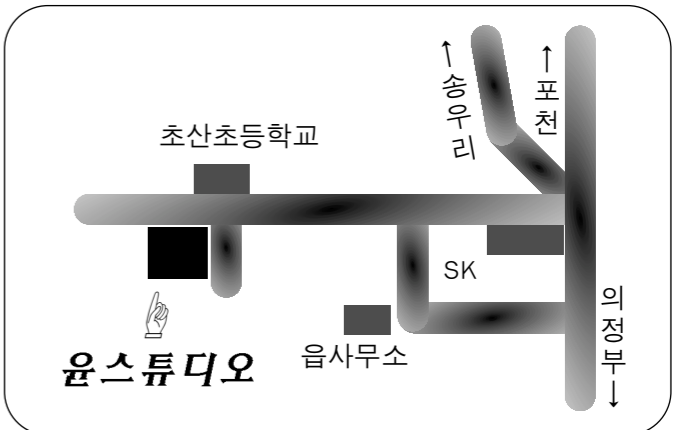
더 이상의 행복은 추구하지 않는다 윤스튜디오

- ☐ 웨딩(야외촬영)
- ☐ 가족사진
- ☐ 베이비
- ☐ 프로필
- ☐ 돌·회갑
- ☐ 증명·여권 / 출장 촬영
- ☐ 디지털(수정·복원·합성)



평 일	8:00~9:00
주 말	9:00~8:00

☞매월 둘째·넷째주 월요일은 쉽니다.



대표 : 김 윤 태